보살도 구하려면 '사종율의' 청정해야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㉞ 사종율의

〈원문〉

"아난아, 네가 마음을 거두는 섭심(攝心)을 물어 내가 먼저 말해 주었다. 삼마지에 들어가 닦아 배울 묘문을 설하였으니 보살도를 구하려거든 먼저 사종율의를 지녀 깨끗하기가 얼음과 서리 같이 하면, 스스로 능히 일체 지엽이 생겨나지 못할 것이며, 마음의 셋과 입의 넷이 생길 원인이 없으리라.

아난아, 이와 같은 네 가지 일을 유실치 아니하면 마음으로 오히려 색(色)·향(香)·미(味)·촉(觸)도 반연하지 아니하리니 일체 마군의 일이 어떻게 생기리요. 만약에 숙습이 있어서 능히 소멸해 제거하지 못하거든 네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불정광명마하실달다반달라무상 신주를 외우게 하라. 이것은 정수리를 볼 수 없는 무위심 부처님이 정수리 위로부터 빛을 발하고 보배 연꽃에 앉아 설한 심주니라."

〈강설〉

〈능엄경〉 7권에는 이른바 능엄신주(楞嚴神呪)라고 하는 주문이 설해져 있다. 대승 경전의 여러 주문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주문으로 알려진 것이다. 불정다라니(佛頂陀羅尼)라고도 하는 이 주(呪)는 총 427구로 되어 있다. 이 주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큰 영험이 있다고 여겨져 널리 염송되었다. 모든 부처님이 이 주문의 근본을 깨달아 마군(魔軍)을 항복받고 부처가 되며 이 주문을 근거로 하여 중생을 제도한다고 경에서는 밝히고 있다. 예로부터 중국 선종에서도 이 주문을 널리 염송해 왔다. 당나라 때 백장 선사에 의해 지어진 백장청규(百丈淸規)에서도 이 주문을 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참회가 이루어지며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8천 번만 외워도 번뇌가 없어진 무상정(無想定)에 들어가며 죄업이 소멸되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청평거사 이자현에 의해 능엄선(楞嚴禪)이 행해지면서 이 주문도 염송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설사 주문을 암기해 외우지 못할 경우에는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의 벽에 써 붙여두기만 하여도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 주문의 효험과 공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다. 일설에는 이 주문이 최초로 암송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때 북종(北宗) 신수(神秀) 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선린상기전(禪林象器箋)〉에 나오는 말이다.

〈능엄경〉이 관정부(灌頂部)에 속한 밀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이므로 능엄주가 설해진 7권의 주심묘용(呪心妙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427구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다나타 옴 아나레 비사제 비라바저라 아리반다 비타니 바저라바니바 옴 도로옹박 사바하 옴 비로제 사바하"이다. 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외는 것이 용맹정진이 되며 삼마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또 법화참법(法華懺法)처럼 능엄참법(楞嚴懺法)이 있는데 주(呪)를 통해 참회를 하여 온갖 악귀 및 질병 등의 재난을 여의고 가피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또 능엄단(楞嚴壇)을 설치하여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나 오시(午時)에 능엄주를 독송하는 풍습도 있었다.

경의 본 대목에서는 부처님이 능엄신주를 소개하며 아난에게 숙세의 나쁜 습기(宿習)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사종율의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종율의란 살생(殺生), 투도(偸盜), 음행(淫行), 망어(妄語)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신(身), 구(口), 의(意)의 삼업(三業)을 깨끗이 하여 십악(十惡)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의 셋은 탐(貪), 진(瞋), 치(痴)이고 입의 넷은 악구(惡口), 망어(妄語), 양어(兩語), 기어(綺語)이다. 이는 모두 삼학(三學)의 계학(戒學)이다. 계학이 갖춰져야 정학(定學)인 삼마지가 이루어지며 삼마지가 이루어져야 혜학(慧學)인 일체지(一切智)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의 근본 대의를 밝혀 놓은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㉞ 선정바라밀

적멸처를 정의 주체로 삼은 것을 대적정(大寂定)에 들었다고 말한다. 대적정의 상태에서는 진여심과 생멸심이 완전하게 분리된다.

이 상태에서 몸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8선정으로 한 단계 내려와야 한다. 8선정의 선정 바라밀은 비상비비상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7선정의 과정에서 25원통수행을 통해 9선정으로 직접 들어간 경우에는 아라한과를 먼저 증득하고 나서 나중에 8선정을 이룬다. 8선정은 아나함과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몸에서 세워진 열두 개의 기점과 본성, 각성,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장부순화, 뼈순화, 신경순화, 세포순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8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발성 수행법과 기공법, 뇌척수로 운동법과 삼관법, 삼해탈법과 막관법이 전체적으로 활용된다. 제도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초선정에서 8선정까지의 과지법이 단계적으로 활용된다.

8선정의 과정에서는 삼관법 중에서 삼마발제의 관법이 중점적으로 쓰인다. 삼마발제를 가관(假觀)이라 한다. 환(幻)이며 참이 아닌 것을 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조물은 환(幻)의 소산이다. 생멸심도 환(幻)의 소산이다. 환(幻)의 소산인 거짓된 가(假)를 제도해서 생명의 가치를 증장시키고 불공여래장을 이루는 기틀로 삼는 것이 8선정을 행하는 목적이다. 8선정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자기 제도는 장부순화이다. 중심 기점이 활용된다. 표면적 유위각이 쓰인다. 두 번째 자기 제도는 척추뼈 순화이다. 명문, 중심, 영대, 중극, 황정 기점이 활용된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인다. 세 번째 자기 제도는 갈비뼈 순화이다.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여진다. 네 번째 자기 제도는 꼬리뼈 순화이다.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회음,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다섯 번째 자기 제도는 욕정의 제도이다.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회음,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여섯 번째 자기 제도는 말초신경 순화이다. 백회, 중황, 중극, 황정, 회음, 옥침, 영대,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일곱 번째 자기 제도는 머리뼈 순화이다. 백회, 중황, 미심, 옥침,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회음 기점이 쓰인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여덟 번째 자기 제도는 육근청정이다. 식의 바탕으로 눈, 귀, 코, 입, 몸, 생각 경로를 제도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아홉 번째 자기 제도는 중추신경 순화이다. 백회, 중황, 미심, 옥침,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회음 기점이 활용되고 43개의 뇌척수 분절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열 번째 자기 제도는 세포 순화이다. 백회, 중황, 미심, 옥침,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회음 기점이 활용되고 뇌척수로 운동법과 살갗관법, 근막관법, 뼈막관법, 골수막관법이 활용된다. 본연적 무위각이 쓰인다. 진여수행의 선정바라밀은 보살도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고 등각도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진여식의 상태와 제도의 대상에 따라서 열 단계의 선정바라밀이 행해지고 등각도 과정에서는 두 단계의 선정 바라밀이 행해진다. 보살도 초지에서는 무념·무심·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간극의 적멸처에 머물러서 밝은성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해탈지견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2지에서도 무념·무심·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간극과 밝은성품에 몰입해 있던 각성을 생멸심으로 전이시켜서 진여심과 생멸심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㉞ '왜'라는 질문

망심을 진심으로, 번뇌를 보리로

세상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물음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동시에 그 질문자가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우선 질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그 잘못된 질문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도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모든 마음을 담기 때문에 그 질문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존재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우게 된다. 우리가 존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이해도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척도를 통해서도 아니다. 그 질문하는 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질문하는 자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면 아무리 존재성에 대해 듣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대해 알기 전, 우리의 질문자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만약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면 그는 영원히 외부적인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자기애에 빠져 외부적인 것을 왜곡시켜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만약 식(識)을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망심이 진심이 되며 번뇌가 보리로 변해 해탈의 경계를 알 수 있네. 해탈의 경계는 결코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이로부터 마땅히 알 수 있듯이 소위 변제(邊際)가 없다는 것은 결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네."

질문의 '왜?'는 자신의 현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자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범위가 전체의 의미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한 질문의 목적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시험일 것이다. 질문의 목적은 '나를 한번 이해시켜 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재주로. 나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잘 이해시키는지에 따라 당신을 판단하겠어.'라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어찌 그와 진실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기에 내가 모르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타당할 텐데 대부분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로 바로 대답할 것이다. '사실 나도 아는 것이 없다. 당신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다는 것이 문제이지, 완전히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모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 완전히 동의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어지럽게 사량분별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부분 이것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으로 삐죽하고 사량분별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여야 할 것은 알려는 그 마음과 안다는 그 생각을 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그 망심을 진심으로 만들게 되고 번뇌를 보리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론가 구하고 향해버린 이들은 찾아야 하는 조급한 마음과 알아야 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핵심을 항상 놓치게 된다. 분별이 망심이고 변하는 것을 고정하려는 마음이 번뇌인 줄 모르고, 진심과 보리가 달리 있는 줄 알고 찾게 된다. 진심과 보리는 따로 없다. 분별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바로 진심이 되고,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알아서 잡는 것도 없고 놓는 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가 된다. 이러한 진심과 보리를 알았다고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달리 해탈을 향해 배를 띄워 향해하지 않는 즐거움을 향유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